

남원 저소득층 자립 돕기 프로젝트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3년간 본인 저축액에 지원금 매칭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 모집

남원시가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오는 2월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올해 남원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Ⅱ(18명)과 함께 희망저축계좌Ⅰ(22명), 청년내일저축계좌(241명)도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3년 간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 만기시 탈수급할 경우 본인 저축액에 월 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생계·의료급여수급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 기준 229만원)의 가구가 해당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할 경우 저축액 360만원에 월 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 만기시 최대



남원시는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립지원사업 설명회 모습. <남원시 제공>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86만원)인 주·교·육·급·여·차·상·위·계·층·가·구·다.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5차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3차까지 진행하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오는 5월부터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5세~38세의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가입가구를 대폭 확대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자 또는 차상위 초과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120명에게 근로소득장려금 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가입 희망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구가 탈수급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기회와 지역사회 정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민원상담사' 고충 해결 척척~

건설·법률·계약 등 8개 분야 전문가·공무원 상담 지원

고창군이 군민 권의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왔던 '군민 행복 민원상담사'가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상담사는 건설, 법률, 소상공업, 사회복지, 공공계약, 문화관광, 행정분야 등 8개 전문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민원상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고창군 감사팀에 방문 또는 우편,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민원상담사의 조사를 통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업분야 지원사업의 제출서류가 너무 많다"는 민원과 관련 조사에 착수해 "행정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요구서류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군에 제시하기도 했다.

또 민원상담사의 제안은 올해 52개 농업 보조사업에 반영돼 군민 제출서류가 평균 7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도 각종 인허가,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부담성과 주민 불편을 민원상담사를 통해 해소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봄철 산불예방 만반의 준비



고창군이 임차한 산불진화용 헬기.

<고창군 제공>

5월15일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고창군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기간 고창군은 산불감시원 56명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7명을 읍·면별로 배치하고 이달 22일부터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 전북 자치도에서 임차한 헬기를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 및 초동진화에 활용한다.

이 외에도 선운산, 방장산 등 관내 10개 노선 60km의 주요 등산로에 입산통제 구역 지정 고시했다.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면 절대 안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 관광·공공시설·부동산 위치 정보 한눈에

'생활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 민원서류 발급 '바로가기'도 추가

정읍시가 최근 시민 생활에 유용한 공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공간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생활공간정보시스템은 그동안 행정업무에 주로 활용해 왔지만 이를 시민들이 직접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새로 제공되는 '정읍시 생활공간정보'는 항공사진과 지적도의 중첩영상, 과거 항공사진, 부동산 정보를 볼 수 있다. 또 행정 구역별 경계, 공공시설물 위치, 문화관광자료 위치 등을 문자가 아닌 지도에 표현해 시각화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족관계,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정보 바로가기'를 추가 등록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생활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읍시가 구축한 생활공간정보시스템.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생활 밀접 정보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해 적극 행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농특산품 가공 업체 포장재 지원

골판지박스·쇼핑백 등 업체당 최대 400만원

정읍시가 농특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과 지역 농특산물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특산품 가공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골판지박스, 플라스틱 용기, 비닐, 스티로폼 포장재를 지원한다.

대상은 정읍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업체이며 운영 실적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축산

물, 임산물, 농차류 등 단순 1차 가공업체나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포장재를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은 31일까지다. 준비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체 중 농산물 구입실적과 인증내역 등을 평가해 내달 중 선정업체를 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수산유통과 농식품산업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